



Senior Professor Lecture

간담체외과에서의 해부학

Young Joo LEE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Surgery, University of Ulsan, Korea

Lecture : 간담체영역의 외과수술의 특징은 암의 원발부위와 함께 간십이지장간막 임파절 청소술, 총간동맥부근과 췌장두부의 후면 임파절 청소술 및 대동맥주변 임파절 청소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간십이지장 간막 임파절 청소술은 간동맥, 문맥, 담관을 제외하고 모든 연체조직을 같이 절제한다. 간이식수술에 있어서도 간동맥, 문맥, 좌우담관지, 간정맥의 구조는 술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간동맥의 정상변이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다. 상장간막동맥에서 우간동맥이 기시하는 경우나 좌위동맥에서 좌간동맥이 기시하는 정상변이의 경우는 흔히 알고 있다. 해부학책들을 살펴보면 그 정상변이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정상변이의 종류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한다. 간동맥뿐만 아니라 문맥, 담관도 여러 해부학적 정상변이들이 있는데 이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수술하는 경우 손상을 유발하고 이 손상은 간농양, 간부전 및 담즙루 등 합병증 및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좌간엽절제술을 계획하는 경우 우후구역담관지가 좌간담관지로 배액이 되는 경우, 우전엽 문맥이 좌문맥에서 분지하는 경우와 Unique left Hepatic artery의 경우는 반드시 술전에 탐지하여 조심하여야한다.

영상검사의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침습성이 높은 담도조영술, 동맥촬영술 및 문맥촬영을 시행하지 않게되었다. MDCT의 발달로 술전 간동맥, 문맥, 담관의 구조와 상호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간정맥의 구조도 술전에 정확히 그려진다. 그러나 방사선과 전문의들은 정상변이의 수술적 의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외과의와 정보교환과정에서 쉽게 생략하곤한다. 결국 간담체외과의는 반드시 수술전에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해야한다.

저자는 간담체 질환의 수술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예들을 중심으로 간동맥, 문맥, 간정맥, 담도 장기별로 정상변이를 기술하고 그 수술적 의의를 공유하고자 한다.